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가까이서 본 큰스님

혜경스님

서울 무설정사 주석

“法나누고 情나누면 보살의 길”

취어선사 ‘幽心’

선사의 합명은 취어(取如) 또는 괄허(括慮)...

어릴 적부터 경서(經書)를 들으면 곧 외우므로 사람들이 감탄하여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라고 하였다...

구족제는 진국 선사에게서 받았다. 선사는 계율을 지킴에 있어서 티끌만큼도 어긋남이 없었다...

石泉亭冷(석천해랭빙) 我齒方自潔(아치방자결)...

산속 사람이 빈 골짜기에 사노라니, 부들 방석에 앉아도 비단옷일세...

선사의 오승(悟頌)은 담연(澹然)하기가 물 속의 달과 같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수미산을 이룰 것”

수학하는 사람들이 혹이라도 앞서 보겠다고 열중하였으나 앞서지 못했다.

수많은 스님들이 선사를 불법의 큰 인물로 기대했다. 유력(遊歷)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수행하였다는 뜻을 마치고...

수년을 용맹정진하며 다니시다가 폐퇴(廢退)한 사찰을 일으키고, 기강이 허물어진 선원을 진작시켰다...

유심(幽心: 그윽한 마음)

山中人在空谷(산중인방재공곡) 坐蒲團方女蘿衣(좌포단방여의)...

3천년 만에 한 번씩 꽃이 핀다는 꽃이다. 우담화(雨曇華)는 하늘에 떠오른 태양을 뜻하며...

선사는 선 수행의 핵심을 생활선에 두었다. ‘대체로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비록 고대광실(高臺廣室)에 백관(百官)을 거느리며 만종(萬鍾)의 녹(祿)을 먹어도 만족을 모른다...

사람은 각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만족함에도 항상 부족하고 사람은 누구나 만족을 안다면 부족함에도 항상 만족한 것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의 오류’는, 사물 인식에 있어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데 있어 좋은 표현이다...

이럴 경우, 반쯤은 억하심정에서 드는 생각이 있다. 만약 장님이 자신이 만진 한 부분을 전체라고 우기지 않는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코끼리 만지는 장님 심정으로 혜경 스님을 보았다. 그래도 들은 풍월은 있어서...

인사 올리고 방안을 둘러보니 뜻밖에도 스님은 세수 예순 아홉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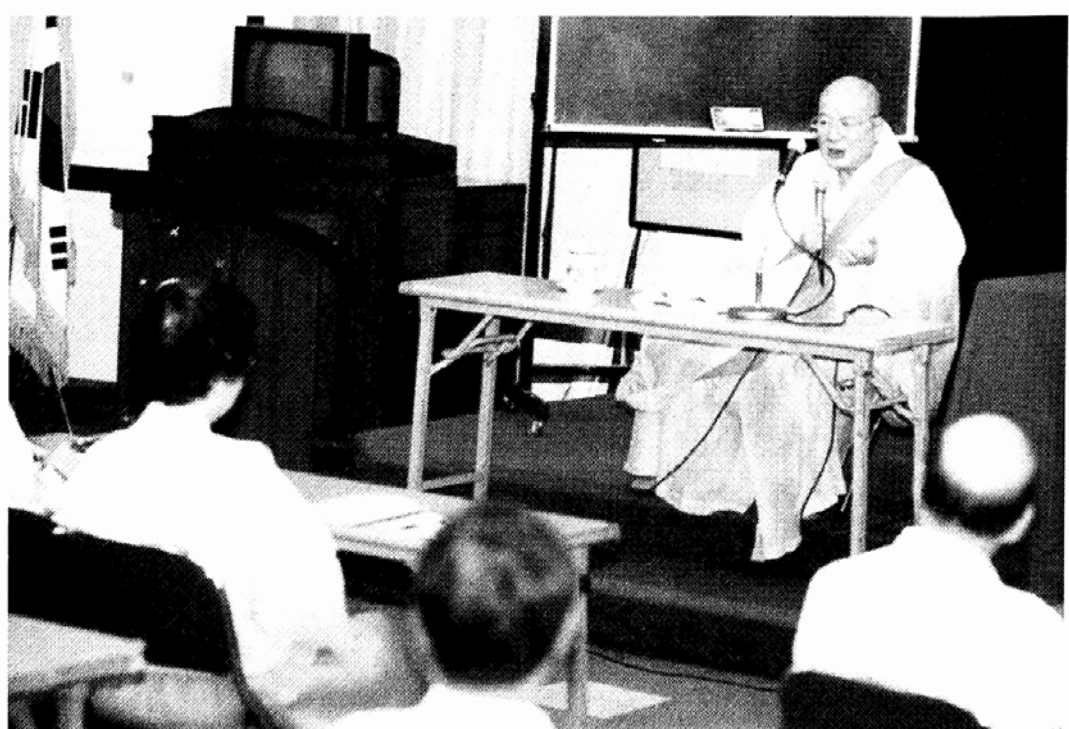
“산스크리트본 <금강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번역은 마무리가 됐는데...

이 또한 뜻밖이었다. <금강경>이라니, 스님의 수행과 교화에 있어 소의하는 경전은 <법화경>이 아닌 것인가?

“<법화경>은 대승경전 중에서도 으뜸가는 경전입니다. 하지만 <법화경>을 신봉하는 일부 사람들이 ‘법화행자’는 다른 모든 경전을 필요치 않는다’고 말하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 어땀투게하니 불교 경전의 총서라는 <법화경>의 성격을 이해할 것 같다...

“<금강경>도 <법화경>도 해탈법문이지만 약간의 성격을 달리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금강경>은 공 도리에 투철합니다...



○홍사단에서 자비행회 회원들에게 법화경을 강의하시는 혜경스님.

“알음알이 경전공부 이상만 키우는 일 체득하고 실천하라”

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허무감을 조장할 수도 있어요...

스님께서는 참으로 법화의 정신에 투철하셨다. 올 2월부터 그 동안 맡아 오셨던 법화중 유지종단 이사장 자리도 내 놓으셨

다고 한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한다.

“부처님의 지혜를 일러 일체종지(一切種智)라고 합니다. 평등지와 차별지를 모두 아우른 지혜라는 말이지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것도 욕망이 아닙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집착을 버리라 했다”고 ‘대비심’마저 버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아름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 위 없이 놓고 바른 깨달음의 경지는 머리로 헤아려서는 알 수 없을 뿐더러 실천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만나지 않으면 곤경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이점에 <법화경>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성문(聲聞) 연각(緣覺)도 능히 부처를 이룬다고 했거든요. 소승을 기사회생시킨 경전이 바로 <법화경>인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유난히 수행의 과정과 실천을 강조하십니다. 행과 일체를 이루는 일이 아니면 모르는 것만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체득(體得)되지 않은 앎은 대단히 위험해요. 체득된 앎만이 사리분별을 넘어설

현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가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한다고 한다.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 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질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원천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도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대.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증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쁜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히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몰려 쇠약하여 고생하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식염분,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부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복청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렸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안전해방’



관절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수직으로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특수 영양식품이 수입되어 화제다.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칼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인산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제’는 남아 있지 않은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물

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사크포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관절염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제’는 국내 삼일양행 (02-790-8200)에서 독점 판매하고 있으며 부작용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랄사크포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 거들래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 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선(禪)불교 표방 대한불교 禪 조계종 불기 2545년 7월 17일 천도기도 도량

경산(慶山)련화사 개원

진실한 불자는 어느 종단이나 사찰에 다니는 것을 알세우지 않고 어떠한 마음으로 절에 다니는가 생각해야 한다. 또한 어느 사찰의 어떤 큰스님을 절 안다고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정녕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엔 종단이 없고, 진실한 부처님은 바로 각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한생각 깨달음은 마음이 부처이고, 한생각 재비한 마음이 보살이고, 한생각 자애로운 마음이 백지불이고, 한생각 청정한 마음이 아라한이고, 한생각 정직한 마음이 인간이고, 한생각 무명하는 마음이 아수라이고, 한생각 이리저리 마음이 속생이고, 한생각 탐욕한 마음이 아귀이고, 한생각 성내는 마음이 지옥이니라.
· 신중기도(신장기도): 매일 음력 초하루 오전 10시
· 약사여래기도: 매일 음력 8일 오전 10시 · 인동기도: 매일 음력 15일 오전 10시
· 지장기도: 매일 음력 18일 오전 10시 · 관음기도: 매일 음력 24일 오전 10시
* 방생 범의에 많이 동참합니다.
· 일시: 9월 3일(월) (음 7월 16일)
· 오전 8시 련화사 출발 · 장소: 염진강, 칠불암
· 동행회비: 2만원
* 우물 명화불사 접수 받습니다.
· 계좌번호: 농협 725014-56-038254 · 예금주: 김광범

(우 712-110) 경북 경산시 정평동 250-31 련화사 주지 무상(無常) 합장 (053) 811-4277
대한불교 禪 조계종 총본산 연등사 삼장법성 대덕 스님 (053) 767-1440